

2021년 1월 5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보잉 -5.30%, 쉐컴 스케이프 -40.84% Vs. 테슬라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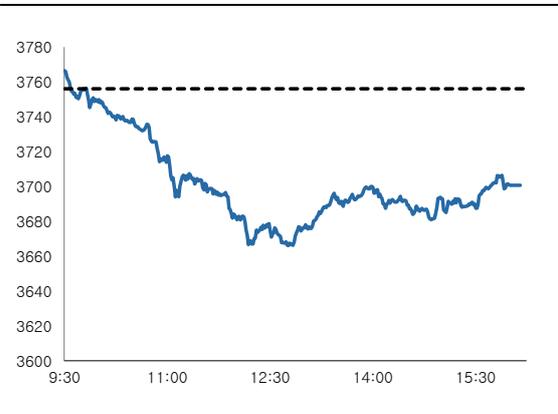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인플레이션 압력 및 개별 기업 이슈

미 증시는 장 초반 추가 부양책 합의 이후 유동성 공급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그렇지만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가던 일부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낙폭을 확대하자 지수 전반에 매물 출회되며 하락. 더불어 일부 종목은 상승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약화시키는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영향.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다우 -1.25%, 나스닥 -1.47%, S&P500 -1.48%, 러셀 2000 -1.47%)

미 증시는 개별 종목 이슈 및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 먼저 보잉(-5.30%)인데 지난 11 월 백신 접종 이후 한달 동안 무려 46%나 급등. 백신 접종이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이를 가능케 했음. 이러한 급등은 필연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다가왔고 12 월 이후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그런 가운데 투자회사인 번스타인이 12 월 보잉 787 판매가 급증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저조한 판매가 이어져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으며 관련 종목도 동반 하락. 여기에 11 월 상장한 쉐컴스케이프(-40.84%)가 12 월 한때 180%나 급등 했으나 연말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매물이 출회 되었으며 오늘도 새로운 이슈가 없었으나 매물이 매물을 불러오며 급락. 문제는 쉐컴스케이프의 급락이 기대 심리만으로 급등했던 일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약세를 불러와 지수 전반에 걸친 차익 욕구를 높였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일부 종목군은 견고한 모습을 보임.

한편, 10 년간 채권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여주는 10 년물 국채와 물가연동채 간 수익률 차이 10 년 BER 이 2%를 넘어서 2018 년 11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이는 백신 접종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상승 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차익 욕구를 높였다고 볼 수 있음. 당장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점 만으로도 시장은 부담을 보였음. 이 결과 금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하락 했음에도 국채금리가 보험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임. 결국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 및 실적에 초점을 맞춰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장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944.45	+2.47	홍콩항셱	27,472.81	+0.89
KOSDAQ	977.62	+0.95	영국	6,571.88	+1.72
DOW	30,223.89	-1.25	독일	13,726.74	+0.06
NASDAQ	12,698.45	-1.47	프랑스	5,588.96	+0.68
S&P 500	3,700.65	-1.48	스페인	8,099.20	+0.32
상하이종합	3,502.96	+0.86	그리스	822.22	+1.64
일본	27,258.38	-0.68	이탈리아	22,315.87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기차 업종 제외한 대부분 종목군 부진

테슬라(+3.42%), 워크호스(+8.29%), 니오(+9.75%) 등 전기차 관련주는 중국에서의 12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자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이어졌다. 보타폰(+2.73%)은 디스커버리+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발표하자 상승했다. 모더나(+6.95%)는 백신 접종 용량을 줄인 상태에서 접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반면, 쿼텀 스케이프(-40.84%)는 지난 연말에 이어 차익 욕구가 확산되며 급락했다. 뉴프로비던스(-4.64%), 핀텍 이큐시션(-2.83%)은 물론 에어비앤비(-5.21%) 등 지난해 상장된 종목군 중심으로 매물 출회 되었다.

보잉(-5.30%)은 실적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매물이 출회 되었으며 레이션(-4.31%) 등 보잉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맥도날드(-2.03%)도 더딘 성장을 이유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되자 약세를 보였으며 에스티로더(-4.21%)도 단기 상승이 지나쳤다는 보고서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되자 하락했다. 차이나텔레콤(-5.48%), 차이나 모바일(-5.89%) 등 미 증시에서 퇴출 된다는 소식으로 급락했으며 알리바바(-2.10%), 진동닷컴(-1.79%) 등 중국 주식들도 부진했다. 애플(-2.47%), 아마존(-2.16%), 알파벳(-1.51%), 페이스북(-1.54%), MS(-2.13%) 등 대형 기술주도 차익 매물 출회되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1%	대형 가치주 ETF(IVE)	-1.33%
에너지섹터 ETF(OIH)	+1.81%	중형 가치주 ETF(IWS)	-1.74%
소매업체 ETF(XRT)	-1.21%	소형 가치주 ETF(IWN)	-1.33%
금융섹터 ETF(XLF)	-1.36%	대형 성장주 ETF(VUG)	-1.45%
기술섹터 ETF(XLK)	-1.63%	중형 성장주 ETF(IWP)	-1.4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0%	소형 성장주 ETF(IWO)	-1.46%
인터넷업체 ETF(FDN)	-0.95%	배당주 ETF(DVY)	-1.86%
리츠업체 ETF(XLRE)	-3.2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0%
주택건설업체 ETF(XHB)	-1.5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4%
바이오섹터 ETF(IBB)	-0.66%	미국 국채 ETF(IEF)	+0.03%
헬스케어 ETF(XLV)	-0.43%	하이일드 ETF(JNK)	-0.25%
곡물 ETF(DBA)	-0.19%	물가연동채 ETF(TIP)	+0.11%
반도체 ETF(SMH)	+0.20%	Long/short ETF(BTAL)	+0.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6.50	+0.13%	-0.31%	-0.29%
소재	451.04	-1.02%	+0.13%	+2.33%
산업재	730.44	-2.55%	-1.84%	-1.68%
경기소비재	1,287.85	-1.13%	+0.83%	+0.89%
필수소비재	688.69	-1.10%	+0.14%	+0.16%
헬스케어	1,316.89	-0.54%	+1.31%	+1.71%
금융	483.80	-1.35%	+0.52%	+1.92%
IT	2,250.17	-1.79%	-0.90%	+2.67%
커뮤니케이션	218.58	-1.51%	+0.40%	-1.04%
유틸리티	310.76	-2.60%	-0.17%	-2.49%
부동산	220.40	-3.29%	-1.57%	-3.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이슈에 주목하는 종목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2.6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4%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6.2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2,950pt 에 근접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했다. 이날 시장의 특징은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고,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급증이라는 이유로 2 차 전지 업종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특징이었다. 결국 전일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슈에 주목한 수급’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형주 중심으로 나타난 이슈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와 지수가 급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증시 전반에 걸친 상승 보다는 종목과 업종에 집중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군의 경우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 원유, 반도체 장비, 전기차 관련 종목군의 경우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수 보다는 개별 업종과 종목군에 주목하는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비 주거용 건설지출 감소 지속

11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에 그쳐 지난달 발표치(mom +1.6%)는 물론 예상(mom +1.0%)을 하회했다.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월 대비 2.7% 증가했으나 설비 투자를 이야기 하는 비주거용의 경우 전월 대비 0.8%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9.5% 둔화되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Vs. 금, 비철금속 가격 상승

국제유가는 OPEC+ 회담 결과 발표가 하루 연기되며 하락 했다. 시장은 OPEC 사무총장이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감산규모 축소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러한 연기 소식은 기대를 약화시키며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러시아 등이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감산 규모 축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점이 부담이 되었다.

달러화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폭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경제 봉쇄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했다. 더불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둔화 우려도 영향을 줬다. 역외 위안화는 중국이 기축통화지수 바스켓에서 달러 비중을 줄인 후 달러대비 0.8%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가지수 낙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이는 채권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인 BER 이 2.01%를 기록하며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금리는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금은 인플레 압력 확산 및 조지아주 상원 결선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2.7%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75%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7.62	-1.85	-1.26	Dollar Index	89.897	-0.04	-0.36
브렌트유	51.09	-1.37	-0.49	EUR/USD	1.2244	+0.24	+0.23
금	1,946.60	+2.72	+3.37	USD/JPY	103.15	-0.05	-0.64
은	27,364	+3.60	+5.62	GBP/USD	1.3570	-0.75	+0.88
알루미늄	2,031.50	+2.63	+1.27	USD/CHF	0.8814	-0.53	-0.89
전기동	7,860.50	+1.22	+0.22	AUD/USD	0.7663	-0.40	+1.11
아연	2,792.00	+1.49	-0.96	USD/CAD	1.2788	+0.47	-0.51
옥수수	483.75	-0.05	+7.26	USD/BRL	5.2719	+1.51	+1.06
밀	642.00	+0.23	+2.39	USD/CNH	6.4529	-0.68	-1.23
대두	1,313.00	+0.15	+3.84	USD/KRW	1082.10	-0.39	-2.33
커피	126.15	-1.64	+0.16	USD/KRW NDF1M	1086.24	-0.06	-0.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913	0.00	-0.99	스페인	0.020	-2.30	-2.70
한국	1.732	+1.00	+9.50	포르투갈	0.007	-1.90	-2.50
일본	0.021	0.00	-0.40	그리스	0.620	-0.10	-2.10
독일	-0.604	-3.50	-3.90	이탈리아	0.546	+0.50	+0.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